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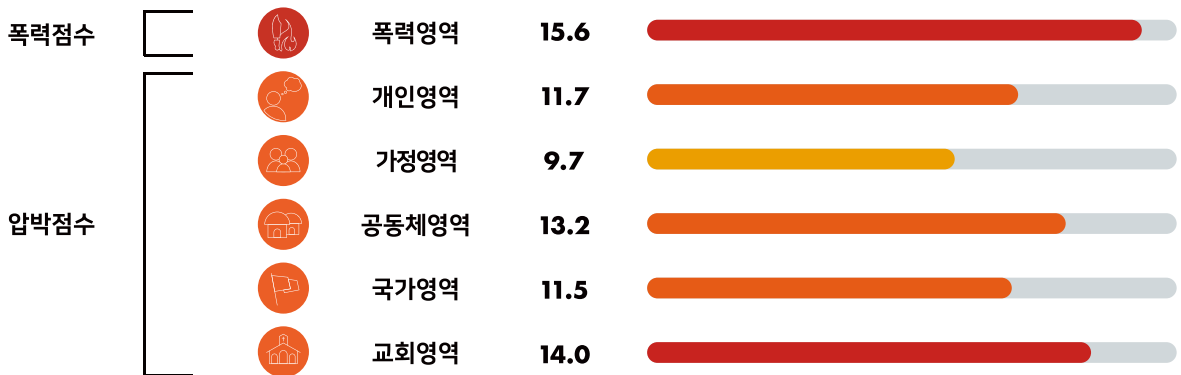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기독교 박해지수
20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최근 몇 년 사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영향력이 점차 확산되며 과거에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았던 도시들까지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슬람과 무슬림의 지원 그룹'(Group for the Support of Islam and Muslims, JNIM)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되어 살해당하고, 교회는 파괴되고 있다. 니제르, 말리, 사헬 지역 전반에서 유사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부르키나파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마을, 교회, 직장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백 개의 교회가 지하디스트 활동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지하디스트 이데올로기가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국가 정보

지도자 :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통령

인구 : 23,840,000 명

기독교인 수 : 6,169,0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군부 통치)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6,169,000	25.9
무슬림	13,362,000	56.0
민속-종교주의자	4,158,000	17.4
불가지론자	145,000	0.6

출처²

부르키나파소는 오랫동안 혼란 속에 놓인 국가로, 수년간의 정치 불안과 군사 독재에 시달려 왔다. 27년간 집권했던 블레즈 콩파오레(Blaise Compaoré) 대통령이 2014년에 축출되면서 그 역사에 또 하나의 격동의 장이 더해졌다. 부르키나파소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저개발된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약 80%가 자급자족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점점 더 서방 열강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영향력 경쟁의 전장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존재하던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보고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의 인권 상황은 2022년에 급격히 악화되었고, 2024년까지 그 하향 추세가 계속되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하디스트 활동의 확산, 조직 범죄, 부패의 피해국이 되었으

며, 이는 이미 심각한 국가 상황에 또 하나의 복잡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잔혹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무장 단체들에는 자마아트 누스라트 알이슬람 왈 무슬림(Jama'at Nusrat al-Islam wal-Muslimin, JNIM),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ISWA), 이슬람국가 대사하라(ISGS), 이슬람 마그레브 지부 알카에다(AQIM), 알무라비툰(Al-Mourabitoun), 안사르 딘(Ansar Dine), 보코하람(Boko Haram)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하디스트 활동의 증가는 국내 실형인 수를 급격히 늘렸고, 그 수는 약 200만 명으로 국가 인구의 약 10%에 달한다.

정치적 불안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2022년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는 통치 구조를 흔들어 놓았다. 첫 번째 쿠데타는 2022년 1월에 발생하여 로크 마르크 크리스티앙 카보레(Roch Marc Christian Kaboré)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하게 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이브라힘 트라오레(Ibrahim Traoré) 대위가 주도한 두 번째 쿠데타가 이 정부를 전복하고 자신의 군사 정권을 세웠다. 부르키나파소는 말리, 니제르와 함께 2024년 초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OWAS) 탈퇴를 발표했다. 이 결정은 세 나라의 군사 정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들은 ECOWAS가 본

¹ 자료 출처: Zurló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자료 출처: Zurló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래의 이상에서 벗어나 자국에 가혹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ECOWAS가 외세의 영향력을 받으며 자국의 테러 및 치안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국가는 G5 사헬 동맹에서도 탈퇴하고, 내부 및 외부의 위협에 대한 상호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사헬 국가 동맹'(Alliance of Sahel States)이라는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부르키나파소의 기독교 소수집단은 더욱 심각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 무장 단체들의 표적이 되며, 그 결과 생명을 잃고, 교회가 파괴되며, 광범위한 강제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납치, 성폭행, 강제 결혼에 취약하며, 소년들은 무장 세력에 강제 징집될 위험에 놓여 있다. 기독교인을 겨냥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인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국가 내 기독교 교회의 구조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 나라의 북부와 동부, 특히 주요 도시 외곽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압박과 폭력을 경험하는 주요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에서도 소수 민족 종교 단체가 기독교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 억압과 씨족 억압이 결합된 형태

부르키나파소는 최근 몇 년간, 특히 북부 지역과 때때로 수도에서 이슬람 급진 세력의 여러 차례 공격을 겪었다. 2016년에 결성된 안사르 울 이슬람(Ansar ul Islam)은 폭력적 방법과 비폭력적 방법을 통해 북부 지역에 자신들의 법을 강요하려 해왔다. 누스라트 알이슬람 왈 무슬림(Nusrat al-Islam wal Muslim, '이슬람과 무슬림을 지지하는 단체')은 프랑스와 프랑스의 동맹국들에 맞서 싸우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 단체의 설교자들은 청년층에게 불행의 원인을 프랑스와 서구의 도덕적 타락 탓으로 돌리도록 선동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교회 및 기독교인 대상 공격이 있었으며, 일부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이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해외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비자발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WWL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로마 가톨릭교회는 부르키나파소에서 가장 지배적인 기독교 교파이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톨릭 신자였으며, 다른 기독교 집단에 비해 가톨릭은 상대적으로 적은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가톨릭 교회도 공격 대상이 된 적이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 범주는 이슬람교나 아프리카 전통 종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포함한다. 이슬람 배경에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가장 심각한 박해를 경험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들은 주로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선교 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이유로, 역사적 기독교 집단보다 이슬람 무장세력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교회는 추가 공격이 계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민간인 지역에 침투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가혹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사헬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서 조직적인 부패는 지하디스트들이 인력을 모집하고 무기를 구매하며 처벌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 현지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정부 내 부패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강도, 납치와 같은 범죄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 와가두구(Ouagadougou)를 포함해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 강제 결혼, 추방, 납치 등 독특한 형태의 박해를 겪고 있다.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특히 동부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매우 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장세력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성들은 강제로 결혼을 당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은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히 기독교 지도자의 딸들이 강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슬람이나 전통 종교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강제 결혼, 살해 위협, 가택 연금 등 추가적인 압력에 직면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회적 공동체 및 네트워크 접근 제한
- 상속권 또는 재산 박탈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구금(가택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사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국가들에서 강제적으로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 남성과 소년들은 강제 징집과 신체적 공격의 표적이 된다. 기독교 남성들의 납치와 살해는 기독교 공동체에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경제적 불안정까지 초래한다. 많은 남성과 소년들이 국내 또는 해외의 더 안전한 지역으로 도피하곤 한다. 대부분 남성인 교회 지도자들도 무장세력의 표적이 되어 납치되거나 처형되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마을이나 국외로의 도피를 강요당함
- 양심에 반하는 군대 / 민병대 징집 또는 복무
- 폭력 - 살해 / 신체적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20	76
2024	20	75
2023	23	71
2022	32	68
2021	32	67

WWL 2025 기간 동안 부르키나파소의 전체 점수는 소수점 반올림 기준으로 1점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지속된 상승 추세를 따른 것이다. 평균적인 압력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고, 폭력 수준은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다. 지하디스트 세력의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고, 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기독교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과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두려움이 확산되었고,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거나 자녀를 기독교 교육 기관에 보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또한, 지하디스트 세력은 여러 지역에서 정부 기능을 대체하며 필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종교적 갈등이 얽힌 민족 간 충돌도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및 다른 기독교 집단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0월, 데베(D b) 마을 공격: 2023년 10월, 테러리스트들이 데베 마을의 전체 기독교인 주민들에게 마을을 떠나도록 강요했다. 이에 저항하던 마을 교회 안의 경찰병 두 명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이 공격은 해당 지역 내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의 중대한 격화를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 2024년 2월, 에사칸(Essakane) 교회 공격: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예배 중, 무장괴한들이 에사칸의 한 가톨릭 교회를 공격해 15명을 살해했다. 이 공격은 예배 중이던 신자들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급진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공격 또는 폐쇄된 교회 및 기독교 건물	강간 및/또는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국내에서 강제 이주당한 기독교인
2025	201	100*	20	10,000*
2024	31	100*	30	7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경우 적대적인 반응에 직면한다. 이는 최근 들어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무장세력들이 집에 들어닥쳐 기독교 관련 자료를 수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집 안에 관련 물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적으로 개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무슬림들은 이를 반대하며, 개종자는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가족 영역

지도자나 설립자가 대부분 무슬림인 일부 학교에서는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이슬람 교육을 받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보보디올라소(Bobo Dioulasso) 같은 도시와 수도 와가두구(Ouagadougou)에서도 보고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이슬람 무장세력에게 살해당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개종자는 상속권을 잃으며,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하디스트의 공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식 결혼식이나 축제를 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인들은 특히 말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에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움(Soum) 주는 현재 이슬람 무장세력 활동의 중심지로 보이며,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납치 사건과 보안군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안사르 알이슬람(Ansar al-Islam) 운동은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학교 교사들에게 프랑스어 대신 아랍어로 수업을 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이슬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방화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을 떠나 피신했다. 강제 결혼도 여성 개종자들을 이슬람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인이 소수인 지역에서는 이들이 지역 자원에 접근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가 영역

교회들은 토지 구매와 같은 행정 절차를 위해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하고 급진적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린 북부, 동부, 서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교회 영역

부르키나파소는 공식적으로 세속 국가이며, 인구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공격의 위협 속에 살아가며 북부, 동부, 서부 지역에서는 무장 세력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면밀히 감시당하고 있다. 이슬람이 다수를 이루는 지역 공동체에서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성경이나 기독교 자료의 판매 및 배포는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아프리카 전통 종교나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이 이런 활동을 할 경우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부르키나파소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3.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4.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부르키나파소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은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기도 한다 (ICCPR 제6조)
-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는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반대에 직면하며, 상속권 박탈의 위협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과 그들의 활동은 무장 세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 여성 개종자는 무슬림 남성과의 강제 결혼 위험에 놓여 있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 행위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ICCPR 제2조)

부르키나파소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슬람 급진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국가의 변두리 지역들은 이슬람 무장세력의 영향 아래 있으며, 이들 지역의 모스크와 마드라사에서는 점점 더 급진적인 수니파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어 수피파 무슬림들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종교적 소수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일부 학교 교사들에게는 꾸란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고도 있다. 한편, 부르키나파소 내에서는 다른 자경단 무장세력들 사이에서 반이슬람 정서도 확산되고 있다.



오픈도어의 부르키나파소 사역

오픈도어는 지하디스트 폭력이 급격히 증가한 2019년에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우리의 비전은 교회가 박해에 성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갖추어 가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회 구성원들에게 영적 힘을 북돋우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훈련(박해 인식 교육), 구호 활동, 영적 돌봄 및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고 있다.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